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21, 창세기 1장 및 요한복음 1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21회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비디오를 장별로 완성했습니다.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한복음의 성경신학에 관한 몇 가지 세션을 시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암시하는 요한복음 1장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탐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의 본질과 창조 교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언급할 때, 그가 단순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창시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창조 교리를 토대로 예수께서 창조된 원래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빛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컴퓨터로 읽을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눈맞춤이 부족한 점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표현력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비추어 요한복음 1장을 연구하려면 석의 분야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신학적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역사적 주석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신학적 주석이 부상하면서, 성경 본문을 엄격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정경 주석의 역사가 기여한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 가치를 지닌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모든 접근 방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전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중요한 성경구절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약성서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석 과정에서 나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의식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신약성서를 구약성서 해석 역사의 권위 있는 부분으로 보면서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의 측면은 일반적으로 성서 내러티브 장르, 특히 창세기와 네 번째 복음서의 장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 내러티브에 관해 우리는 내러티브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루크 티모시 존슨(Luke Timothy Johnson)의 말대로 문체가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밀도가 높은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을 영적인 복음으로 묘사한 클레멘트의 말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독특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우화적이거나 상징이 담긴 의미일 수도 있다는 돈 카슨의 제안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여기서 다루게 될 한 가지 질문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요한은 새 창조 또는 창조 갱신의 신학을 어느 정도로 의도하고 있습니까? 특히 창조와 관련된 성경 본문의 해석 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John Walton이 일치 론(concordism)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일치주의(Concordism) 는 성경 자체가 현재의 과학적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며 현재의 과학 이론과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대 과학 이론이 무엇이든 고대 성경 텍스트로 다시 읽는 경향이 있는 무분별한 접근 방식을 가리키는 월튼의 용어입니다. 과학 이론.

주의 의 이중 문제는 경전의 가르침을 현재의 과학 이론과 일치시키려는 시도에서 경전의 역사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 이론의 역사성과 일시적 성격은 과소평가됩니다. 본 연구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암시를 본문 간 세부사항과 주제적 연결을 통해 요한의 창조와 새 창조 신학의 예비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성경 본문 자체의 밀도 때문에, 본문에 관한 수많은 2차 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성 과정이 무엇이든간에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궁극적으로 정경 전체로서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네 번째 복음서와 함께 읽혀지도록 의도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또한 신약성서의 요한 본문 전체와 특히 요한 서문의 주된 환경이 영지주의적이고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유대적이고 성서적이라는 최근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한 서문 뒤에 숨어 있는 원시적인 중요한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33장과 34장입니다. 서기 1세기에 존재했던 다른 유대인 본문의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요한의 프롤로그는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33장, 34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본문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인 미드라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유대인 본문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사이에 그럴듯한 문학적 매개자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는 공백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환경에는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반영한 텍스트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그럴듯한 문학적 중개자에는 잠언 8장과 유사한 유대인의 지혜 본문, 즉 집회서 24장, 지혜서 7장부터 10장, 바룩, 3장과 4장과 같은 본문이 포함될 것입니다. 필로의 로고스 이해 그리고 다른 유대인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멤라(memra)에 대한 주석적 개념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하고 계몽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로고가 이러한 예상 항목을 초월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주제를 소개한 후, 논문 본문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주요 상호텍스트 문제에 대한 조사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창세기 1장의 메아리나 암시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처음 부분에 있는, 선재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창조 행위 자체로, 말씀을 생명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치된 단어인 빛과 어둠. 따라서 방금 언급한 카테고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을 모델로 하여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장의 시작 언어인 그리스어 en Arche는 요한복음 1장 과 히브리어의 bereshit과 마찬가지로 칠십인역의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 합니다 .

먼저, 구약성서에서 처음에는 베레쉬트(bereshit)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베레쉬트(bereshit) 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왕국, 신명기 11장의 연초, 왕의 통치, 예레미야 26장, 27,28장 죄의 시작 미가 1장 다툼의 시작 잠언 1장 7절 지혜의 시작 시편 111편 지식의 시작 잠언 1장., 창세기 49장과 기타 구약성경 본문에 따르면. 출애굽기 34장과 다른 구절들에 따르면, 농작물의 첫 열매는 수확의 시작입니다.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확의 첫 번째, 헬라어 아치, 예레미야 2장 3절 및 기타 본문입니다. 엘리는 제물의 첫 부분인 첫 부분을 먹은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서는 신명기 33장 21절과 비교하여 레위인에게 할당된 땅은 땅의 첫 번째 또는 선택된 부분입니다.

지혜는 인생 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시편 111장 10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히브리어와 칠십인역의 헬라어에서 시작(reshit)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을 가리킨다. 잠언 8장 22절은 이 두 단어가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는 또 다른 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시트(reshit)는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에서는 아르케(arche)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라고스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님의 호크마(hokmah), 즉 지혜 에 대한 언급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 이 두 텍스트 는 구약에서 세상의 창조된 시작에 대해 논쟁의 여지 없이 유일하게 reshi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적어도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도 그럴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55번 나오는 것은 현세적 또는 정부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인간 통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로마서 8장 38절과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을 포함한 여러 본문에서 계층적 천사의 권위를 묘사하는 데 더 자주 사용합니다. 아르케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동의 일시적인 시작, 즉 과정이나 존재의 상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르케(Arche)는 복음의 초기 시대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2, 요한복음 8:25, 15:27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일을 태초부터 있었던 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종말론적인 환란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헬라어로는 세상 창조 이후로 *ap'arches kosmou*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은 시편 102편 25절을 기독교론적으로 읽는데, 예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묘사, 즉 태초에 따라 카트 아르카스(*kath ' arkas*) 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만물이 창조 때부터,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것이 계속 있다고 믿는 회의론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유다서 6장은 나중에 반역한 천사들이 그들의 첫 번째 상태, 즉 자신의 시작을 떠난 것으로 창조된 상태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유다서 6. 아르케는 또한 적어도 두 개의 중요한 구절, 즉 골로새서 1:18과 요한계시록 3:14에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찬양하는 일련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시작이시며 모든 창조와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Arche ktiseos to theu*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인으로 묘사하며, 아마도 예수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 원인이자 원죄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

여기서 또 다른 주요 상호텍스트 용어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우리의 두 번째 임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o logos)라는 단어는 6일이 시작될 때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3, 6, 9, 14, 20, 24. 구약의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판에서는 카이 에이펜 호 테오스(kai eipen ho theos) genetheto ,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히브리어로 vayomer 엘로힘 응 .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맥락에서 그리고 또한 2장 1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카이 다음에 나옵니다. 에이펜 kreos ha theos , 칠십인역,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vayomer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가 언급은 1장 5절에 나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헬라어 동사 칼레오 (히브리어 아카라) 를 사용하여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으로 부르십니다.

2일차와 3일차에 생성된 엔터티에는 동일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나중에 아담은 1장 19절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23절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3장 20절에서는 하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넷째 날에 그의 피조물들과 인간들에게 헬라어 용어인 유로가이신(eulogaisin)을 사용하여 축복을 말씀하신다 .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요한 사이에 직접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언어적 연결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행위의 언어를 넘어서 많은 관련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3편에서는 말씀에 의한 창조가 강조됩니다. 6절과 9절.

33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은 동의어로 창조의 병행 행위자들이다. 33장 9절에는 창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동의어적으로 평행한 관계가 있다. 자주, 주님의 말씀인 데바르 아도나이(debar adonai)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나 심판의 경고를 약속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옵니다.

시편 107장 20절, 예레미야서 1장 4절, 이사야서 9장 8절, 에스겔 33장 7절, 아모스 3장 1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독특하게 지배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147편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마도 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장과 관련하여 가끔 인용되는 이사야서 55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그것을 성취할 계획이다.

하나님의 드바르(debar),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Torah), 하나님의 지혜인 호크마(hokmah)의 의미론적 중첩과 신학적 연속성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전 문헌과 이후의 랍비 전통은 잠언 3장 19절과 잠언 8장 22-31절과 같은 성경 본문에 대한 이러한 연속성과 성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본문에서는 지혜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존재했으며 창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혜 자체는 잠언 8장 23절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칠십인역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에텔레미 오신(ethelemiosin) 입니다 . 하나님은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지혜도 낳아지고 탄생합니다(잠 8:25). 분명히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의 어법을 암시합니다 . 딜투 agenata , 모든 일은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카이 코리스 자동 아게네토 그 사람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것도 창조되지 않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자로서 의인화된 지혜의 교리를 크게 초월합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가면, 신약성서에서 로고스는 구두 발언, 가르침, 약속 또는 서면 메시지 등 다양한 종류의 신적 또는 인간적 의사소통이나 계산에 사용됩니다. 틀림없이 요한이 선재하신 예수에 대해 로고스를 사용한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의 초기 변형 읽기에서는 아버지와 성령을 말씀과 연결하는데, 이것이 원본 사본의 정경 본문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초기 암시일 뿐입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반인격화된 ha 로고 tou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당신, 즉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인간의 마음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대화와 토론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강조하는 이사야서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대한 암시도 관련성이 있고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에 대한 선제적이고 궁극적인 의인화로서의 호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사소통 말씀에 대한 이전의 모든 언급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비교하십시오. 네 번째 복음에서 전개된 바와 같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exegetes, 헬라어 exegesato는 아버지를 너무나 적절하게 계시하고 설명하여 14장 8절과 9절에 따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본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요한복음 3:14), 5장 16-19절에 따르면 안식일에도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썼고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47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세의 말씀과 나란히 놓여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셨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58절.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 성결케 하는 능력이 필요한 자들로 묘사합니다(요한복음 17:6, 14, 17). 요한과 같은 영적인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언급들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어쨌든, 부활 후 예수님의 출현은 한 의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즉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입니다. 로고에서 창조 행위 자체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창조 행위에 대한 설명, 판타 데이 자동 에게네토(egeneto),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거나 일어났으며,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70인역에는 에포이센 호 테오스 투 우라논(epoisen ho theos to ouran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에게 네테토는 70인역의 1, 2, 3일에 나오는 언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반영합니다. 1 장 3절, 6절, 14절에서 게네테토 (let there be) 또는 테토산(thetosan) 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창세기 1 장 3 절의 가벼운 언어가 있었습니다, egenatheto 포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1:26, 27, 31절과 5:1-2장, 6:7절에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성서의 창조 행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바라(bara)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원래 창조를 가리키는 데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Bara는 다른 텍스트에서 후속 개인, 조건 및 상황의 생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54번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시편 51편 7절, 창조 자체, 이사야서 4장 5절, 41:20, 45:8, 65절과 같은 텍스트에서 개인의 변화와 관련된 맥락에서 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15절에 따르면, 후자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이스라엘 자체의 미래 창조도 포함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또 다른 단어인 아사(asah) 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2,500번 이상 사용되는 매우 흔한 이 단어는 다양한 종류의 만들기과 행위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7절, 11절, 12절, 16절, 25절, 26절 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행위 다음에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고 저것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일, 3일, 4일, 6일에 발생합니다. 다른 많은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활동, 즉 최초의 창조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 활동과 관련하여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사는 또한 신명기 26장 9절, 32:6, 이사야 17:7과 같은 본문과 추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또한 에스겔

18:31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변화를 행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창세기 1장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측면은 존재로 이어지는 언어 순서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신은 여섯 번이나 말씀하신다, 바이요머 엘로힘, 예히, 등,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셉투아게나 에이펜 호 테오스 ... 아게네토 포스. 매번 존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예히 (Yehi)라고 말씀하신 후, 본문에서는 바예히(Vayehi) 또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헬라어 70인역에서 하나님은 에게 네토(egeneto) 라고 말씀하십니다. Tathos, 그리고 Kai egenato가 있습니다. 테오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5일의 끝을 표시하는 전환은 존재 언어를 반복하고 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이제 우리는 신약성서의 창조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70인역에서 바라 와 아사를 히브리어 로 번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이에 오(poieo)라는 단어 도 창조에 사용됩니다. 이런 일은 마태복음 19장 4절과 같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신약성경 본문과 유사한 본문 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창조를 뜻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단어는 Ktidzo 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같은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동사 크티시스 의 명사 형태를 비교하는 신약성서의 새 창조로서의 구원 신학에 중요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10, 에베소서 2:15, 4:24, 골로새서 3:10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티시스를 사용한 이 용어는 복음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 3절과 1장 10절에서 기노마이(ginomai) 를 사용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창조를 위해 기노마이(ginomai) 를 사용하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거의 독특한 것으로 보이며, 창조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 에서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기노마이, 하야, 칠십인역에서는 기노마이 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한복음 8장 58절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이전 존재가 아브라함의 과거 기원과 대조됩니다.

프린 아브라함 *genethai*,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ego eimi*, I am.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의 구약과 신약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의 또 다른 구체적인 측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암시입니다. 1장 3절, *en auto zoe* 에서 요한이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언급함 *ko*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자체가 물론 생명이 중심인 창세기 1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과 다른 물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시되 모두 생물로 묘사되느니라, *프수콘* 그리스어로 *zoon*, 히브리어로 *nephesh haya*입니다. 1장 24절에서도 가축과 기타 육지 생물에 대해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장 28절에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거리로 푸른 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네페쉬헤야(*nephesh haya*)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기를 받아 요한복음 20장 22절과 비교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물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생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편 89편 47절, 시편 90편 10절과 같은 많은 구약성경 본문에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26, 여호수아 3:10, 사무엘상 17:26 및 추가 구절.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신명기 4장 10절). 12:1, 신명기 31:13. 이 언약적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께 순종할 경우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그들이 그분께 불순종할 경우 죽음과 역경의 저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신명기 31장 15절부터 20절).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의 문제이지만

삶은 또한 질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적 변화, 마음의 할례를 제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그를 위해 살아가,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20절과 32장 4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잠언 8장 35절과 잠언서의 여러 말씀에 따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들은 그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시편 36편 9절, 창세기 2:10, 예레미야 2:13 비교).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육체적인 지상 생활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육체적인 지상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많은 본문도 단순한 육체적 삶에 대해 말합니다(행 17:25). 20절 10절, 야고보서 4:14. 다른 많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 초월적인 삶에 대해 말합니다(행 11:18, 13:48, 로마서 6:4).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행 3:15, 로마서 6:8 및 다음과 같은 본문). 이런 종류의 삶은 다가올 세상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마태복음 19:16). 요한의 본문은 또한 삶의 시기에 단순한 육체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0:15, 17, 요한복음 12:25과 같은 성구들과 다른 성구들은 육체적, 물질적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종말까지 지속되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생은 신자들의 현재 경험이지만 요한복음 5장 21절과 24절과 25절에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자이다'라는 진술 중 세 가지, 자아 에이미(ego eimi)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시다(6:41, 48, 51). 그분은 생명 안의 부활이시다(요 11:25).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 14:6). 아마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요한복음 8장 12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역순이기는 하지만 생명과 빛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생케 하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복음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과 빛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명과 빛을 어둠과 죄와 연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12.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의 또 다른 주제는 빛과 어둠의 개념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말은 1장 4절의 빛이라는 단어로 상징됩니다. 포스 톤 안트로폰에게 있어서 생명은 인간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언급은 빛이 어둠 속에 비취는 것이며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암시하며, 70인역에서는 카이 스카토스라고 말합니다. 에포노트 아부수, 카이 에이펜 하 테오스 제네테이토 포스, 카이 에게 네토 포스. 즉, 흑암이 깊음 곧 깊음 위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빛과 어둠을 보면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을 1장 2절의 어둠을 대신하여 빛을 창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처음 5일을 각각 표시하는 저녁과 아침의 순서를 시작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빛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것과 연관시킵니다(욥기 38:19, 시편 74장 16절과 17절, 시편 104편 2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종종 빛을 주시는 것을 통해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따르면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암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출 13:21, 14). 20 및 해당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기타 텍스트.

성막의 기구에는 메노라와 등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욥기에서 빛은 욥기 12장 22절, 25절, 욥기 30장 26절, 38:15과 같은 본문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욥기 26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지자,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빛과 어두움은 선과 악, 번영과 역경, 축복과 심판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텍스트 인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빛과 어둠으로 전환합니다. 빛과 어둠은 신약성서에서도 은유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16절을 통해 추종자들을 계몽시킵니다. 또한 마태복음 5:14-16, 마태복음 6:22-23, 누가복음 2:32은 이사야서 42:6과 49:6을 언급하며 사도행전 13:47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신약성서와 처음 9개의 서신서에는 비슷한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5에서 빛과 어둠의 의미는 잘 알려진 hogegonen에 대한 구두점 불일치로 인해 복잡해졌으며, 이는 암탕을 묘사하는 관계절로 앞이나 뒤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1장 3절 끝. 그럼 읽을 수 있겠네요, 카이 코레이 자동 에게네토 oude hen hagegonen, NIV와 같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1장 4 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연결 동사 en 의 주어인 en auto 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으로 조이 그 에게 일어난 일은 인생이었고 나머지는 다음 구절과 함께 살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암시의 확실성은 비록 암시의 뉘앙스는 영향을 받더라도 이 논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의 접근 방식에서는 텍스트를 읽으면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단어 창조의 보편적인 범위는 창조된 모든 것과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강조됩니다. 후자의 접근 방식에서는 그에게서 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4절).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하지만,

말씀보다 말씀을 통해 일어난 생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어 창조의 보편성.

아마도 후자의 견해는 우리가 이 연구의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에 담긴 새 창조의 의미를 더 지지할 것입니다. 대체로, 하계고넨 을 창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성육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요한의 말뭉치는 전체적으로 1.1.4.5의 사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빛과 어둠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이 창세기 1장 3절의 첫 번째 창조 행위의 이미지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중심 은유로 사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4는 아니더라도 1:5.5에서는 그 말씀이 타락한 세상의 어둠에 의해 이해되거나 정복되지 않는 빛의 성육신으로 제시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진정한 깨달음의 증인입니다. 이제부터 빛과 어둠은 윤리적 이원론적 은유로 정기적으로 나타나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하여 빛과 믿음을 연결하여 생명으로, 어두움과 불신을 연결하여 심판으로 이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생명의 현실과 말씀을 빛의 은유와 연관시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을 새 창조 본문으로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창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한의 성경신학인 종합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로고와 원본 창작물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대한 몇 가지 암시로 복음서를 시작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말씀이 창조 당시에 존재할 뿐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적인 진술은 창조자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 모두에서 가정하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처리된 전치사구와 quodius 그 외에 alu는 창조와 관련된 단어의 활동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서 있었고,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통해(through)는 창조자로서 단어의 개인적 기관을 가리킨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활동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상위 신에 의해 창조의 임무를 위임받은 열등한 신이 아니었고, 말씀의 창조 작업도 성부와 성령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창조자로서 단어의 직접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8:6, 골로새서 1:18, 히브리서 1:2과 같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에서 그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창조의 갱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장엄한 프롤로그는 로고스, 즉 말씀을 아사르코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엔사르코스 로 제시합니다. 아사르코스로서, 즉 예수께서는 기존 상태의 육체 창조자와는 별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자,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엔사르코스 계시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말씀을 모든 것의 본래 창조자로 단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도 요한의 새 창조 신학을 잠재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계시자로 단정하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후자의 요점이 전자의 요점만큼 복음주의자에 의해 자주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즉 복음주의자들은 이 본문에서 원래의 창조 교리를 갖고 있는 만큼 창조의 갱신 교리를 정기적으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빛으로서의 로고스는 창조의 갱신이라는 요한의 구원 신학 개념을 정당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 5:12-21, 로마서 8:18-23, 고린도후서 4:3-7, 고린도후서 5:17과 같은 텍스트의 서신 장르와 논증에서 바울이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은 아마도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세상의 갱신인 창세기에서 바울의 흥미로운

사용.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은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에 의해서도 전달되는데, 비록 단순한 산문 언어가 아닌 서술적 예술성을 통해 더 암시적으로 전달됩니다.

주석에서는 요한복음 1장의 다양한 세부 사항의 창조 의미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제를 확장하여 다루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어떤 주석과 연구에서는 요한복음 1:19 이하에서 7일을 발견하며, 이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20장과 같은 텍스트에서 복음의 낙원 모티브를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면서 동산지기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Kostenberger의 창조 배움에 대한 요약은 Brown의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2009년 Zondervan 에서 출판된 Andreas Kostenberger의 John's Gospel and Letters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Janine Brown의 기사, 2010년 Catholic Biblical Quarterly에 실린 John 복음의 창조의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ostenberger의 치료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빛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프롤로그에 나와 있지만 표적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와 수난 이야기, 심지어 부활 기사에도 새 창조 신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처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문구와 요한복음의 모티브인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의 절정인 20장과 21장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몇 가지 암시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한 새로운 창조 주간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브라운은 달리 주장하지만 유효한 반향, 즉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 간 반향을 결정하기 위한 헤이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제안된 암시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똑같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명확한 이미지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고 그의 호흡이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대한 암시가 제안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회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절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중요한 상호문맥적 암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네 번째 복음서가 창세기 1장에 존재했던 모든 것의 창조자로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수많은 암시에서 드러납니다. 위에서 조사한 내용은 1장부터 창세기 1장까지이다. 말씀의 직접적인 기관과 창조는 말씀의 기관을 감소시키는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인 과정을 가정하는 기독교 기원 이론을 제안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큰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현재의 기원 이론에 대한 논증을 제공하기 위해 창세기 1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논의하기 위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언급하여 네 번째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예수 이야기를 원시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의 이야기에 묘사된 빛과 어둠의 윤리적 이원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떠나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세계의 어둠이 밝혀졌듯이,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세상에 온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4-5 및 8:12). 정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5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하는 개념적 궤적에 위치합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 요한복음 1장, 베드로후서 3장을 거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최종 결론에 이릅니다..

육신이 없는 말씀,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말씀(요한복음 1:1), 성육신하신 사르코스 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고귀한 시작이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와 새 창조의 대리인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21회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입니다.